"향나무 가로수 병해충 전파 우려"

목포시 16억여원 들여 4㎞구간 식재
관리도 힘들어…인근 과수농가등 반발

목포시가 최근 '화단형 도로 중앙분리대'에 향나무를 식재했으나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인근 배나무 재배농가에 병해충를 옮길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가로수 수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16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북항 삼거리~삽진산단간 고하대로 2㎞와 9호 광장~하당 광장주유소간 2㎞구간 중앙분리대에 향나무를 심었다.

또 국도 1호선인 석현동 구 검문소에서 대양동 검문소 구간 등 주요 간선도로 화단형 중앙분리대에도 향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

그러나 향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아 바람이 자주 부는 항구도시인 목포 특성에 맞지 않은데다 1년에 두차례 이상 가지치기 작업을 해줘야 하는 등 관리가 힘든 수종으로 가로수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나무는 배나무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붉은별무늬병'의 중간 숙주(宿主)로 알려져 있어 인근 압해도 배 과수농가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붉은별무늬병이 1970년대 초 부터 향나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자 농림부가 배나무 재배단지 주변의 향나무를 제거토록 조치한바 있다"고 밝혔다.

원예업을 하는 김모씨는 "관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좀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심경관을 위해 상록수인 향나무를 심게 됐다"고 해명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시가 지난해 연말 화단형 도로중앙분리대에 향나무를 심었으나 가로수 수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74억원 들여 잔디구장 6면 조성
목포시 국제축구센터 17일 첫 삽

목포시 대양동 노득동 마을에 세워질 국제축구센터(FC·조감도) 건립 공사가 오는 17일 시작된다.

노득동 마을 일원 7만2천여평에 1, 2단계로 나눠 진행될 FC 공사는 674억원이 투입돼 2008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국제 규격의 천연잔디구장 2면, 인조잔디구장 4면, 250명 수용이 가능한 숙소동, 실내 축구연습장, 이벤트 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수영장, 사우나, 스파 등 수익시설을 민자 유치 사업으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목포 FC가 건립되면 축구 꿈나무에서부터 청소년, 프로축구, 국가대표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해 호남 축구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갓바위앞 해상 보행교 설치

목포시 길이 290m 폭 3.6m…내년말까지 완공

목포 갓바위 앞에 해상을 지나는 보행교가 설치된다.

목포시는 "목포팔경 중의 하나인 갓바위 앞을 지나는 해상 보행교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벌이고 있다"면서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하당 우미파크빌 아파트 앞 공원에서 갓바위 해상을 거쳐 자연사박물관으로 연결될 이 보행교는 길이 290m, 너비 3.6m로 16억 원이 투입돼 내년말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애초 이 구간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도교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경관보존과 생태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보행교로 변경했다.

갓바위 앞 보행교 설치는 미래 지향적인 해양관광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목포 명물인 갓바위 관광 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보행교 준공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 조명도 설치, 현재 추진중인 평화광장 앞 해상 분수대 등과 함께 목포의 관광 명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전남 서남해 '여객선 전화 예약 운항제' 全항로로 확대

전남 서남해를 오가는 낙도보조항로 여객선에서 시범 실시됐던 '전화 예약 운항제'가 확대 시행된다.

전화 예약 운항제는 중간 기항지인 낙도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박 이용자가 없을 경우 다음 기항지로 바로 운항하게 된다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규진)은 지난해 완도군 노화 이목~어룡도 간을 운항하는 신해 2호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2만ℓ 의 유류 절감효과를 거뒀다.

목포해양청이 지난 해 13개 항로 14척의 낙도보조항로 여객선에 지급한 결손 보조금은 43억 원이며 이 중 유류대가 18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객선이 정박할 경우 선박에 설치된 용량이 큰 발전기 대신 육상 전력을 사용해 기름을 절약해 나가기로 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신안군 정전 피해 양식어민 지원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지난해 8월20일 신안군 암태면 해역에서 발생했던 송·배전선 절단사고로 대규모 피해를 입었던 양식 어민들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신안군은 단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4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속한 양식어업 재개를 돕기 위해 4억3천만원(도비50%, 군비50%)을 확보했다.

군은 가구별 지원금액과 지원사업을 확정하기 위해 안내문을 피해어가에 발송했다.

군은 치어 입식과 사료 구입 등 해당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원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암태 양식어민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응)는 지난해 용역결과 확정된 피해금액 92억원을 배상받기 위한 협상을 한전측과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또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를 요청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최병일씨 '소금' 김창완씨 '포즈2' 금상

신안군 사진 공모전 입상자

신안군은 11일 '제3회 관광 신안 공모전' 및 '우이도 세미누드사진 촬영대회' 입상자를 발표했다.

관광공모 사진전 금상에는 최병일(광주시) 씨의 '소금'이 선정됐고, 은상에 '일몰'(이예호), 동상에 '흑산도 어항풍경'(서양규)과 '증도의 여름바다'(장래선)가 각각 뽑혔다.

또 우이도 세미누드 촬영대회에서는 김창완씨의 '포즈2'가 금상을 수상했으며 은상에 '우이도와 미녀'(양금옥), 동상에 '몸부림'(서승옥) '맵시'(김은진) '반영'(김광용)이 각각 선정됐다.

입상작은 관광사진 38점, 우이도 세미누드 사진 120점 등 모두 158점이며, 시상식은 다음달 2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다.

입상작들은 각종 군 행사시 전시되며 사진 공모전 작품집, 달력, 연하장 등 '관광 신안'을 알리는 홍보물 자료로 활용된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관광 신안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최병일씨 작품 '소금'

美교포 23명 '무안 미국타운' 입주 신청

郡, 희망자 30세대 넘어서면 조성공사 착수

'무안 미국타운'(Amercian Village in Muan)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23명의 미국 교포들이 무안 미국타운 입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입주희망자가 30세대를 넘어설 경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오는 18일 교민 45명이 2박3일 일정으로 무안을 방문, 예정부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무안 미국타운은 재미교포 은퇴자들이 고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 공간 등 편익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무안군은 지난해 8월 무안 미국타운 조성 대표자(이길중 목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설립 예정지로는 현재 무안읍과 현경·운남면 일대가 거론되고 있다.

4만여평 규모의 무안 미국타운 건립에는 4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수요에 따라 최대 200세대까지 건립된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나 주	332-5544
광 양	792-8111	무 안	452-8535	나주남부	334-6969
보 성	853-9700	해 남	534-5151	화 순	374-4423
순 천	746-8111	완 도	554-6677	장 성	392-7000
고 흥	833-9900	영 광	351-0055	담 양	383-8111
녹 동	842-2121	신 안	243-3758	영 암	473-2340
구 례	783-8111	진 도	543-0100	장 흥	863-8822
곡 성	362-8111	강 진	433-8355	광 산	944-0444
		함 평	324-8111	고 창	564-1919
				순 창	653-6155